

# ‘SKY캐슬’, 최고 시청률 경신 “매화가 레전드”



“또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안방에 ‘캐슬’ 신드롬을 일으킨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유현미 극본, 조현탁 연출)이 또 한 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SKY 캐슬에서는 16회에서는 김주영(김서형)이 김해나(김보라) 살인사건 용의자로 캐슬 내 가장 의심 받는 강

에서(김혜운)를 무사히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황우주(찬희)에게 누명을 씌운 모습이 드러났다.  
우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주영의 제안에 갈등하던 한서진(열정아)은 “마지막 3학년 1학기 내신만 퍼펙트하면 서울의대는 문제없습니다”라는 주영의 설득에 결국 “우 리에서 살려주세요”라며 주영에 의

지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우주에 대한 죄책감과 예서가 인장을 재생시켜놓고 다른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피어 오를 것 하지만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결국 우주는 해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에서는 해나의 손톱 밑에서 우주의 피부조각이 발견됐다는 부검

## 탄탄한 스토리와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아

결과와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내세웠다.  
피부조각은 해나가 우주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끊힌 것이었지만, 해나가 떨어질 때 배란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서있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된 것. 생일파티에서 빨간 후드티를 입은 사람은 우주 주뿐이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이수임(이태란)과 황치영(최원영)은 우주의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고 수임과 담당 변호사는 배란대에서 보일러실을 발견했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캐슬의 수칙상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내부인이 우주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 후드티를 입고 해나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하지만 우주는 마지막으로 “날 예서의 학습도구로 생각한데, 예서 코디고”라는 해나의 말을 수임에게 전하고, 검찰로 송치됐다.  
우주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면서 치영 대신 척추센터장이 된 강준상

(정준호). “애초에 왜 쓰잘데리 없는 앤 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더? 태생이 그런 앤 문제를 만든다 니까”라며 해나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준상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건 강예빈(이지원)이었다. 해나가 준상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빈이 장례식에 오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던 준상에 “해나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 해나 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아빠가 사립이냐고”라며 폭탄을 터트린 것.  
예서와 해나의 관계를 알게 된 수임은 처음에는 “그 불쌍한 애를 죽여 놓고 내 아들한테 뒤집어씌워?”라며 서진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우주의 말을 근거로, 주영과 해나가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곧장 주영을 찾아갔다.  
게다가 “해나 죽음에 죄책감 갖지 말고 있어”라는 주영의 말에 위로를 받던 예서에게도 의심의 싸이 지라났다. 해나의 양무새 열쇠고리가 주영의 사무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서진은 해나의 USB 녹음파일을 통해 주영과 해나의 대화를 듣게 됐다. “시침이 빠졌잖요? 기말고사 앞두고 예서 방에 들어가서 아줌마가 준 예상문제 몇 장 훔쳐봤거든요”라며 주영을 찾아간 해나였다. “강에서, 서울의대 떨어뜨려주세요”라고 협박하는 해나에게 “넌 무서운 게 없냐”라는 주영의 싸늘한 목소리에 서진은 경악했다. 마침 해나 열쇠고리를 손에 쥔 예서와 마주친 수임은 주영과 해나가 만났음을 확인했다. 수임은 “그렇다고 해나까지 그렇게 만들어? 죄 없는 내 아들을 누명을 씌워?”라며 주영을 몰아세웠지만, 주영은 오히려 “나한테 천벌 받을 년이라고 했지. 너도 영영 나오지 못 할 지옥 불에서 살아봐”라는 소름 돋는 말을 남겼다.  
이렇듯 반전의 반전, 파국으로 치닫는 ‘SKY 캐슬’. 탄탄한 스토리와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SKY 캐슬’은 다시 한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신드롬을 입증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KY 캐슬 시청률은 전국 19.2%, 수도권 21.0%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 경신과 함께 수도권 시청률은 20%의 벽을 넘어선 것. 앞서 11일 방송된 15회에서는 16.4%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폐회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 여자친구 ‘해야’가 더 특별한 이유

걸그룹 여자친구가 신곡 ‘해야’로 컴백한다. 이 가운데 한글로만 이뤄진 가사 내용이 인상적이다.  
여자친구는 지난 11일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 ‘Time for us(타임 포 어스)’의 타이틀곡 ‘해야’ 가사가 담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타이틀곡 ‘해야’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해’에 비유한 노래로, 전작 ‘밤’과 이어지는 서사를 완성함으로써 더욱 깊어진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이다. 현란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소용돌이치는 소녀의 복잡하면서도 애절한 심정을 표현했다.  
특히 100% 한글로 이루어진 노랫말이 눈길을 끈다. “타는 심장이 버티지 못해 /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꿈에서 깨어나 / 아무것도 모른 척하지 말아줘”, “차지친 찬란한 / 해야 해야 같이 여자친구 특유의 서정적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적인 가사가 감수성을 자극한다.  
비단 ‘해야’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첫 정규앨

범 101’ 타이틀곡 너 그리고 나’를 비롯해 수록곡 ‘바람에 날려’에서도 외국어 가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트로를 제외한 10곡 중 5곡이 100% 한글 가사로 구성됐다. 요즘 외래어나 외국어가 들어간 노랫말이 많은 만큼 이러한 여자친구의 한글 가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이다.  
이처럼 여자친구는 데뷔 초부터 한글 가사를 사용하며 그룹과 노래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자친구 특유의 건강한 에너지와 청량한 매력은 가사를 통해서도 완성된 셈.  
한편 여자친구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 ‘Time for us’를 공개한다.

## 광희 vs 피오, ‘아는형님’ 뒤집어놓은 예능 대세들



“아는형님” 광희와 피오가 눈에 띄는 활약으로 형남들과 시청자들을 웃겼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서는 2019년 예능 활약이 기대되는 ‘호동을 배신한 동생’ 광희와 ‘호동에게 엮인 동생’ 피오가 출연했다.  
광희는 제대 이후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출연해 한민관 배영만 닮은꼴로 비교됐고, 등장하자마자 비주얼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과거 ‘스타킹’에서 ‘무한도전’으로 넘어간 광희는 “내가 ‘스타킹’을 오래 하다가 ‘무한도전’에서 기회가 와서 옮겨서 왔다. 그 후로 강호동에게 전화를 한 번도 못했다. 전역 후에도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강호동은 “당시 내가 광희에게 ‘더 큰 무대에서 네 꿈을 실현시키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호동 피해 프로듀스 101’이 펼쳐졌고, 광희는 “‘스타킹’에 나갔을 때 처음부터 호동이 날 애뺐는 게 아니다. 사이니 민호, 이승기, 2PM 택연, 니쿤 등 다들 회사도 좋고 웃기고 그룹도 굉장한 애들이

다. 우리 제작의 아이들은 노래도 대박난 그룹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호동은 “그때 광희를 잊을 수가 없다. 스타들이 1월에 배치돼 있었고, 나한테는 저 멀리 있는 광희가 기존에 없는 톤으로 토크를 하더라. 완전히 센 ‘강심장’ 공기를 안도했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광희는 “내가 썰 끝에 3월이었다. 10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척추가 나갈 것 같다. 조금이라도 쉴면 호동이 무섭게 쳐다봤다. 우리한테는 말로 안 한다. 말 시키기 귀찮은지 표정으로 했다”며 직접 강호동의 표정을 흉내내 주변을 폭소케 했다.  
또 광희는 “‘스타킹’ 때 3월에서 2월로 가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호동의 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센 멘트를 했다. 그래서 성형 고백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희가 예능 흡수지에서 지수성 가했다면, 예능 금수저 피오는 “난 좋았다. 되게 수월했다”며 웃었다.  
강호동은 ‘대탈출’, ‘신서유기’ 등에서 호감을 맞춘 피오를 유난히 예뻐했고, 광희는 다정한 강호동의 모습에 낯설어했다. 피오는 여유가 넘쳤고, 광희는 필사적으로 방송에 임했다.  
광희는 “피오는 여기서 나가도 다 안 보면 그만이다. 돌아갈 거요 계도 있지만 난 갈 곳이 없다. 우리 그룹 애들이 다 흩어진 상태. 드라마도 나가봤자 출연비만 들고 헤어 페이크업 비가 더 든다”고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강호동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피오는 광희를 향해 “예능 대세는 나야”라며 경고했고, 추지현의 남편 우효광의 상대모사로 분위기를 끌어들였다.  
또한 17살부터 지금까지 절친인 위너 송민호에게 배신감을 느낀 사연부터 강호동에게 “아들 시후가 딱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감동적인 말을 들은 사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피오는 tvN ‘남자친구’에 함께 나오는 박보검, 송혜교를 언급하며 “‘아는형님’에 나온다고 자랑하니까, 자기도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송혜교 선배님과 촬영하다가 실물 미소를 보고 나도 모르게 웃어서 NG가 났다”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광희와 피오는 ‘오나나나’ 인사출도전, 전주 1초 듣고 맞히기, 2교시 예능 활동 등 ‘예능 대세’다운 활약으로 빅제미를 만들었다.

## ‘말모이’ 개봉 5일째 100만 관객 돌파

개봉 전부터 공감 어린 웃음과 목격한 울림, 배우들의 진정성이 선사하는 감동으로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말모이’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마귀 판서(윤계상)가 조선어 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개봉 5일째인 13일 오후 12시 1,003,40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웰메이드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2: 인터넷 속으로’, DC와 제임스 완 감독의 ‘아쿠아맨’의 흥행세에 제동을 걸며 개봉 첫 주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데 이어 개봉 5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한 ‘말모이’. 영화에 대한 실관객들의

의 아낌없는 지지와 쏟아지는 호평에 힘입어 흥행 열풍에 한층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계상, 윤계상, 김홍중, 우현, 김태훈, 김신영, 민진웅 등 비러만 봐도 든든한 연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완성된 평판 터지는 웃음부터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말모이’는 CGV 폴든 에그 지수 98%, 네이버 실관객평점 9.38점, 롯데시네마 9.3점 등 전 세대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추천 세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음력 12월 9일)



▶**쥐** 가장 안에 격정거리가 있지만 온기는 양호한 편이다. 가쪽끼리 단합해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서 여유로움을 즐기도록 하라. 기, 오, 자, 천 성씨는 오후8시가 넘으면 걱정도 해소됨. 요식업자는 수익이 짝짤하니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하겠다. 동쪽이 길함.



▶**곰**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 찾은 것. 1, 7, 12월생은 버린 사람 잡으려고 미련두지 마라. 제난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지, 리, 흥 성씨는 애정에 이끌리지 말라.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자기발전에 공들이고 노력하는게 상책.



▶**고양이** 3, 8, 10, 11월생은 병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알아줄 자 없으니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 길만이 당신을 고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천, 오, 흥 성씨는 미련두지 말 것. 휴일에 집에만 있지 말고 야외로 나가서 기분을 풀어라.



▶**토끼** 기, 부, 자 성씨는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세심한 관심을 보여 일탈하지 않도록 감싸는 마음을 가져라. 부모된 마음으로 중심이 흔들리면 신뢰를 받지 못해 항상 답답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 자체로 돌봄이 좋겠다.



▶**호랑이** 세상 일 모두가 짜증이 나며 쉽게 좌절을 느끼는 때이니 자기수양이 필요한 시기. 기, 오, 자 성씨는 가족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이전에 자신의 행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성해보라.



▶**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4, 5, 11월생은 여러 곳에 뜻을 두면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발전 또한 늦어짐을 알 것. 비, 오, 흥, 자 성씨는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친다. 과욕은 삼가도록.



▶**말** 1, 3, 5, 7월생은 주위에 추척하는 자가 많다. 큰 것을 향해 적은 것을 버리는 과감성을 보이는 것도 성장의 길로 접어드는 일이다. 기, 기, 리, 흥 성씨는 불쾌한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라. 인내심이 중요한 날.



▶**양** 때때로 당장 헤어질 것처럼 대판 싸우고 나면 스스로 길을 알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어찌 좋은 일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 행위로 좋은 상황을 만들면 곧 물거품이 되니 진실을 추구하라. 길은 오직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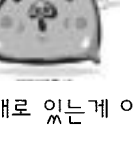
▶**원숭이** 1, 2, 3월생은 매사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하라. 진실된 마음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으나 가식은 불행을 자초하는 꼭,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은 남쪽으로 가지 마라. 파란색이 힘을 주니 활용할 것. 급한 돈이 들어온다.



▶**새** 밝고 쾌적한 날이라도 안이하게 생각지 말라. 비, 기, 천 성씨는 생각지 못한 장애가 있기 쉽다. 미혼은 사귀는 사람에게 따라서 길흉이 나뉘니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 것. 1, 3, 5, 10월생은 준비 부족으로 부자유를 느끼는 때.



▶**돼지** 비, 기, 천 성씨는 사방에서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2, 7, 11월생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그 이상이 되면 유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현이 특이한 것 같아도 안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날이니 매사에 조심하라.



▶**소**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법. 기, 리, 흥 성씨 중 3, 4, 6, 8, 12월생은 직업적인 문제로 고심할 수 있다. 기분 나쁘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 젊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노고 후일 열매를 맺으니 열심히 할 것.